

#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22·23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사회적경제 정책·기업 홍보 예술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TV·온·오프라인 통해 다채롭게 진행

개인보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생산품을 판매하는 장이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등에서 '2021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TV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생활애 스며들다'를 주제로 지역 내 1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회적기업 홍보 △예술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성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JTV 전주방송 채널을 통한 특집방송과 온·오프라인 등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된다.

박람회는 크게 △방송편-TV방송 △온라인-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체험관 △나눔관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방송편의 경우 22일 저녁 7시와 23일 오전 10시(재방송)에 JTV 전주방송을 통해 안방 콘서트를 만나볼 수 있다. 총 8개의 문화예술 분야 기업이 참여해 퓨전타악, 뮤지컬, 플랜스 크로스오버 등 다채로운 공연이 선을 보이게 되며, 전주시 사회적경제 정책들도 소개된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등에서 '2021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TV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TV 방송이 종료된 다음인 22일 저녁 8시와 23일 오전 11시에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안방 콘서트를 만나볼 수 있다. 총 8개의 문화예술 분야 기업이 참여해 퓨전타악, 뮤지컬, 플랜스 크로스오버 등 다채로운 공연이 선을 보이게 되며, 전주시 사회적경제 정책들도 소개된다.

박물관에서 마련된다. 빨대를 활용한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식물을 활용한 테라리움(terrarium) 만들기, 천연염유 탈취제 만들기, 일상 속 건강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시는 또 전주중산신협에서 600만 원을 후원받아 동네마트에 입점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나눔 한 상자'를 구성해 지역 내 취약계층 150여 세대에 전달하는 나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시는 문화·예술, 서비스, 체험·교육, 생산·판매,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을 확산시키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시상식'에서 대상 표창을 받았으며, 사회적경제 진화도시로도 선정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서 '중독탈출도 식후경' 우수프로그램 선정

전주시가 알코올 중독자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추진한 영양지원 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고성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주관한 '2021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중독탈출도 식후경'으로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은 정신건강 분야 사회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총 761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중독탈출도 식후경'은 복지사각지대의 중독인을 대상으로 음주로 인해 초래된 영양문제를 돌보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센터는 영양지원과 함께 신체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였다.

이와 관련 센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급증하는 지역사회 내 중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긴급 출동 등 중독질환자 발굴과 개입에 있어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이용객 만족도 높아

### 설문조사 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 94%... '친절'·'매우 친절' 98.6%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 8일 전주시실용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바로온 이용객 35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94.0%로 조사됐다.

특히 설문 대상자의 98.6%가 '친절' 또는 '매우 친절'하다고 응답했으며, 97.1%는 이용 요금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차량에 대한 만족도도 8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선 만족도는 67.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 항목은 △노선 만족도 △친절 만족도 △요금 만족도 △차량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단은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한 승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운전원 전원을 대상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선 만족도'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단은 이용객의 수요를 정확히 분석한 뒤 배차 시간 조정, 정류소 개편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바로온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4대의 차량으로 20개 노선을 운행하며 하루 평균 시민 1100명의 발이 끊어지며 하루 평균 시민 1100명의 발이 끊어지며 하루 평균 시민 1100명의 발이 끊어지며 하루 평균 시민 1100명의 발이 끊어진다.

에도 일조하고 있다.

단거리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은 500원으로 책정됐다.

구대식 이사장은 "바로온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과 '친절'을 모토로 전주시민의 빠르고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바로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한옥마을 미세먼지·열섬현상 완화 기대

### 전주시,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표면강화물질 사업 선정 무상 지원 받아

전주한옥마을 보도블록 표면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현상도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코팅제가 도포된다.

전주시는 최근 조달청이 주관한 '2021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 '항균력,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보유한 표면강화물질(카이하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시범 사용기관으로 선정된 수요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

산으로 제공받아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시는 3억8000만 원 규모의 표면강화물질(품명 카이하드)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됐다.

시는 지원받은 카이하드를 다음 달 말까지 한옥마을 내 콘크리트 보도블록과 투수블록 표면 등 1만5000㎡에 도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한옥마을의 도로 표면온도를 2.9℃ 낮추고 미세먼지를 1000㎡당 연간 3.4kg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항균

성을 높임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유해 균에 의한 감염과 초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에 혁신제품을 시범 적용하게 됐다"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사업들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꿈드림 청소년단, 정책제안대회 3년 연속 수상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3년 연속 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최근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최한 '전라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전주시 꿈드림 청소년단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시 꿈드림 청소년단은 지난 2019년 전라북도의회의회장상, 지

난해에는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상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청소년의 바람으로 변화하는 전라북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라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청소년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대회로, 도내 10개 팀이 자웅을 겨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

고 정책을 발굴·시행·평가하는 동아리인 전주시 꿈드림 청소년단은 이번 대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CP(Challenge Point) 장학금제도'를 제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CP장학금 제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장학금 수혜기회를 늘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6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상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